

정기지표

Kstat Report

2020년 12월 31일

케이스탯 2020년 12월 정기지표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- '올바른 방향' 소폭 하락한 51%
- 60대 이상이 '잘못된 방향' 견인 주역

경제 방향성 평가

- 대한민국 경제, '잘못된 방향' 평가 지속 우세

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

- 대한민국 미래 전망, 긍정/부정 혼동 양상

정부 신뢰도

- 정부 신뢰도, 소폭 하락하면서 부정평가 역전

정부정책 만족도

- 정부정책 '만족 않는다' 62%로 최고치 경신

개인 행복도

- 어제 하루 '걱정 많았다' 소폭 증가하며 지속 우위
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-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불가능하다' 인식 확고

• • • • 일러두기

- ❖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세부항목의 합이 100%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.
 - ❖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 - ❖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.
 - ❖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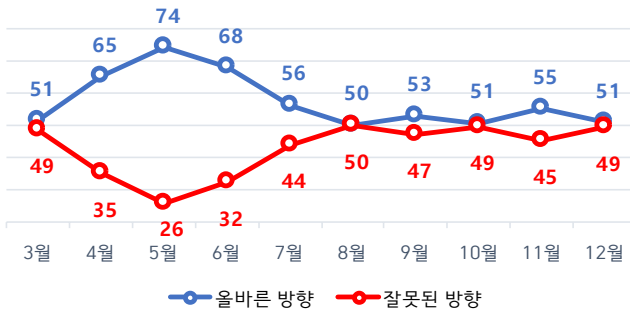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※ '올바른 방향' 소폭 하락한 51%

- ▶ 대한민국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11월 다소 상승했으나, 12월에는 4%p 하락하며 51%를 기록함
 - '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' 51% vs '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' 49%로 격차는 1%p에 불과함
- ▶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2050세대 △진보층 △호남 △화이트칼라 계층 등임
 - 인천.경기지역은 '올바른 방향'과 '잘못된 방향'이 공히 50%로 동일함
- ▶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, 중도층 △서울, 충청권, TK, PK △자영업자, 블루칼라, 주부, 은퇴.무직자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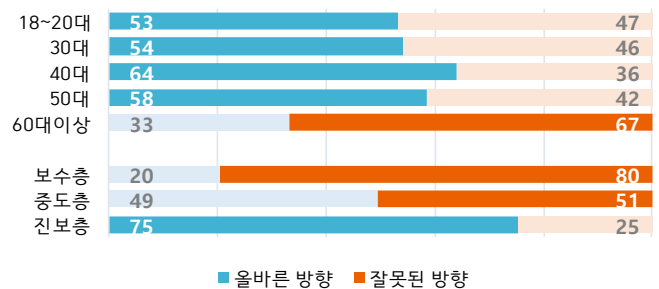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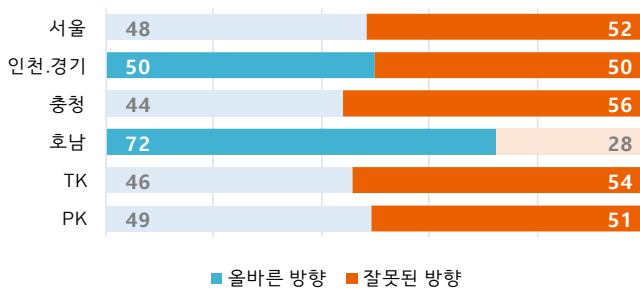
12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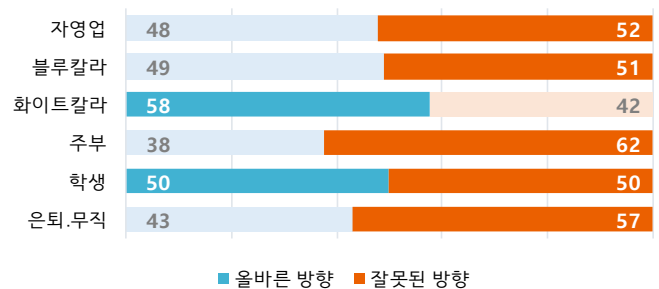
12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12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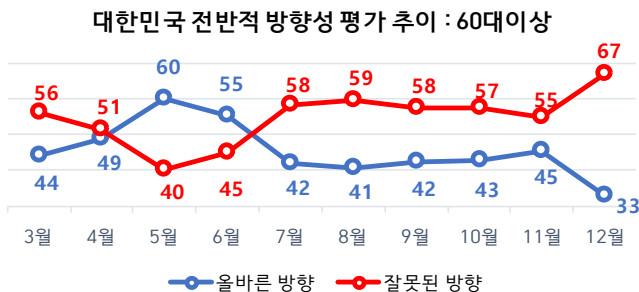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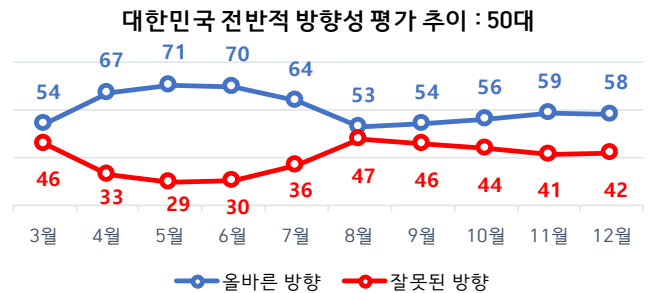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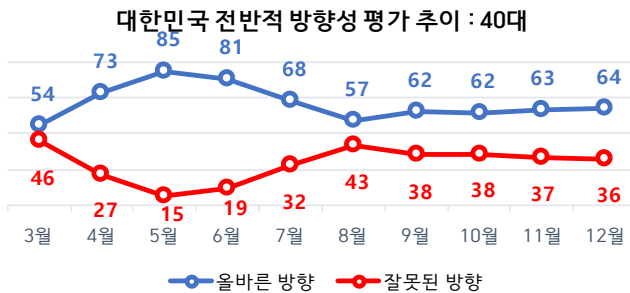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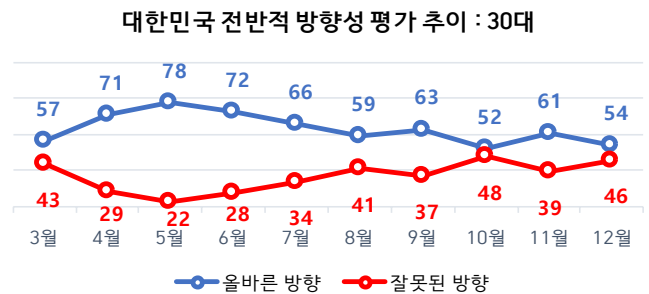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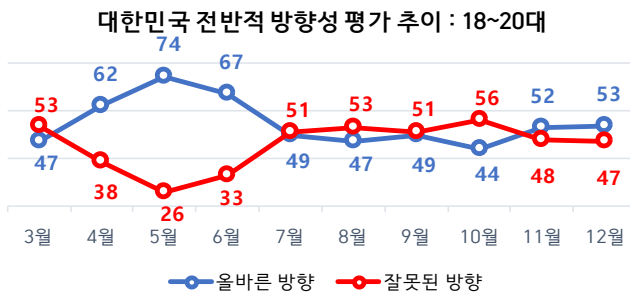


Kstat Point

- ☑ 그 간의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는,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 상수가 되면서 코로나19 확산, 진정 여부에 따라 평가 방향이 달라지는 경향성을 보여 왔음
 - : 코로나19 확산시 정부 대응과 국민적 참여가 부각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, 코로나19 진정시 정부정책에 대한 갈등이 부각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이 반복되어 왔음
- ☑ 그러나 12월은 이러한 경향성과 다른 양상을 보임
 - :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긍정평가가 하락함
- ☑ 여기에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위 회부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
 - :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사상 초유의 현 상황에 대해 국민적 불만이 고조된 결과로 분석됨

※ 60대 이상이 '잘못된 방향' 견인 주역

- ▶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4050세대는 11월과 큰 차이가 없으나, 60대 이상 연령층은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가파르게 상승함
- ▶ 30대도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11월 39%에서 12월 46%로 상승함



Kstat Point

- ☑ 앞서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의 경향성이 그동안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으나, 이는 60대 이상과 30대에 한정된 것으로 분석됨
 - : 즉, 다른 연령대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
 - : 60대 이상 연령층은 이러한 경향성을 탈피하고, 30대 일부도 탈피 흐름에 가담하고 있으나 국민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한민국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
- ☑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(징계위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) 다른 연령대가 지금과 같은 경향을 유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
 - : 윤석열 총장은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슈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
 - : 2021년 1월 정기조사시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지켜볼 대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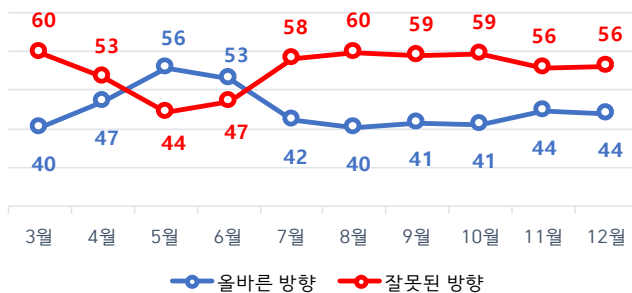
경제 방향성 평가

대한민국 경제, '잘못된 방향' 평가 지속 우세

- ▶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'잘못된 방향'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
 -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에 대한 부정평가 우세는 7월 이후 일곱 달째 지속되고 있음
 - 12월 경제 방향성 평가는 '올바른 방향' 44% vs '잘못된 방향' 56%로 11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함
- ▶ 경제가 '올바른 방향'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50대 △진보층 △호남 등에 그침
 - 40대는 '올바른 방향' 50%, '잘못된 방향' 50%로 의견이 동일함
- ▶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2030세대, 60대이상 △보수층, 중도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충청권, TK, PK △자영업 등 모든 직업군임
 - 화이트칼라 계층의 경우 11월에 50:50으로 대등하였으나, 12월 들어 부정평가 소폭 우세로 역전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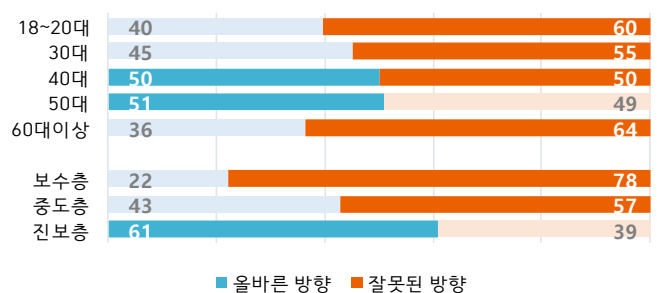
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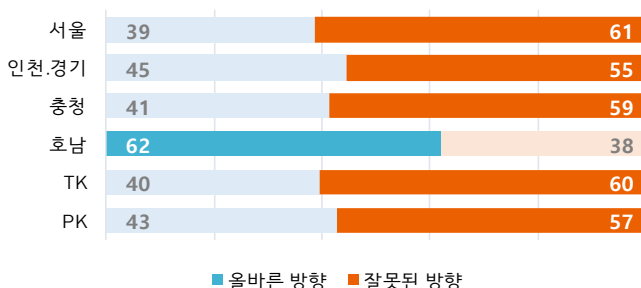
12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연령별, 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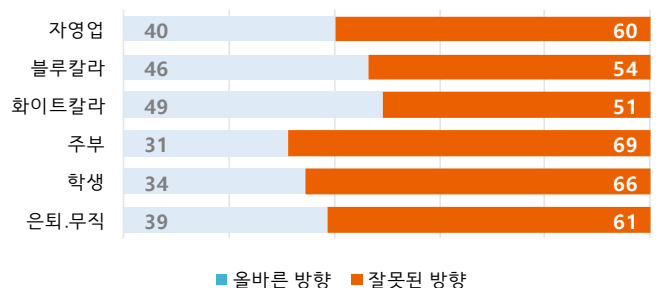
12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12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12월 들어 코로나19가 더욱 확산세를 보이고,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압박감이 고조되고 있음
- ☑ 정부는 3단계 격상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,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
- 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현실화될 경우, 경제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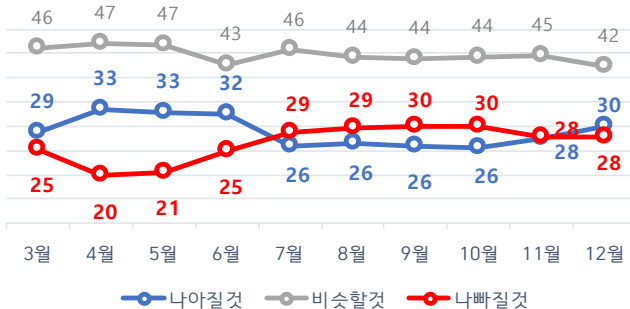
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

대한민국 미래 전망, 긍정/부정 혼동 양상

- ▶ 5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전망은 긍정과 부정이 혼동스럽게 중첩되어 있음
 - '지금과 비슷할 것'이라는 응답이 42%로 높은 가운데 '지금보다 나아질 것' 30% vs '지금보다 나빠질 것' 28%로 엇비슷하게 조사됨
- ▶ '지금보다 나아질 것'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4050세대 △진보층 △호남, TK △화이트칼라 등임
 - '나아질 것'과 '나빠질 것'이 대응하게 나타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인천.경기, PK △자영업자, 블루칼라 등임
- ▶ '지금보다 나빠질 것'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2030세대 △보수층, 중도층 △서울, 충청권 △주부, 학생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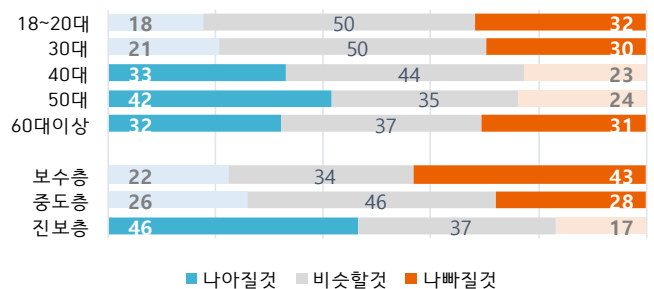
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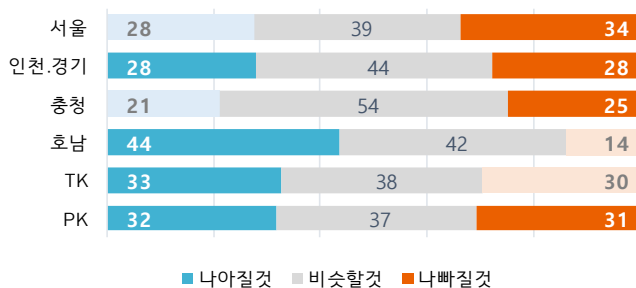
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 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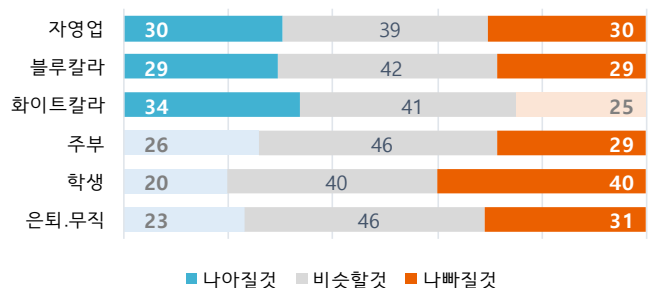
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 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️ 코로나19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,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험사리 희망을 선택하지 못한 채 절망의 언저리에서 방황하는 양상임
 - : 사회경제 중심세대인 4050세대만 '나아질 것'이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음
- ☑️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는 만큼 새해 1월에는 국민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지,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임
 - : 코로나19 이슈로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여부,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행 여부, 긴급재난지원금 3차 지급 대상, 미국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 등 다양한 이슈가 산재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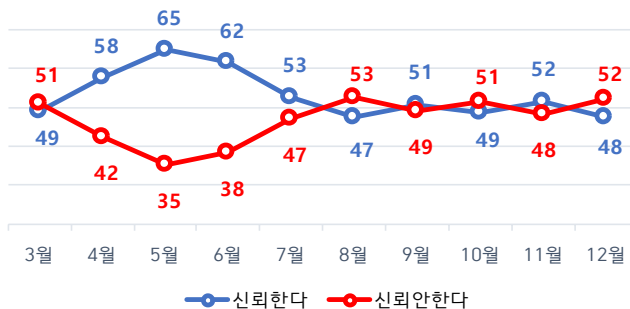
▣ 정부 신뢰도

※ 정부 신뢰도, 소폭 하락하면서 부정평가 역전

- ▶ 정부 신뢰도는 7월 이후 일곱 달 연속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, 12월에는 부정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남
- '신뢰한다' 48% vs '신뢰 안한다' 52%로 '신뢰 안한다'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함
- ▶ 정부를 '신뢰한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4050세대 △진보층 △호남 △화이트칼라 계층 등임
- ▶ '신뢰 안한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2030세대, 60대이상 △보수층, 중도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충청권, TK, PK △자영업, 블루칼라, 주부, 학생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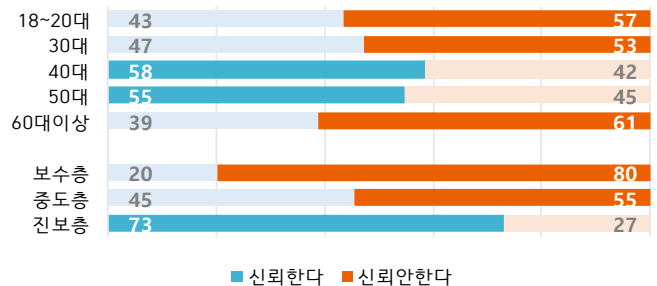
정부 신뢰도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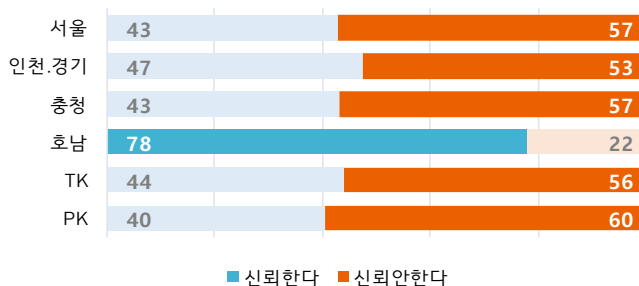
12월 정부 신뢰도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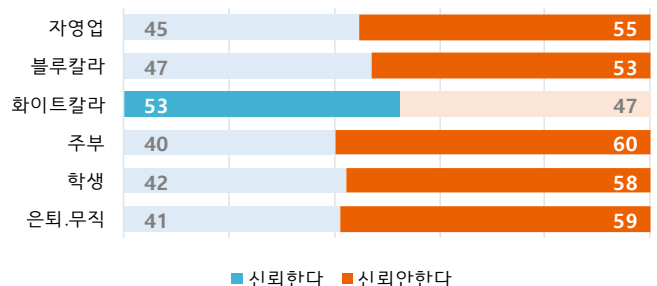
12월 정부 신뢰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12월 정부 신뢰도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정부를 신뢰한다는 계층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4050세대, 진보층, 호남, 화이트칼라 계층 등임
: 그러나 계층 내 주도력을 살펴보면 진보층과 호남은 강력한 데 비해, 4050세대와 화이트칼라 계층은 굳건하다고 말하기 어려움
: 40대의 정부 신뢰도는 58%이고, 50대는 55%, 화이트칼라는 53%로 주도력이 다소 약함
- ☑ 향후 윤석열 총장 이슈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옮겨가고,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 신뢰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다분함
: 여권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 이슈의 조기 진화와 코로나19 백신 조기 도입 등으로 신뢰도 향상을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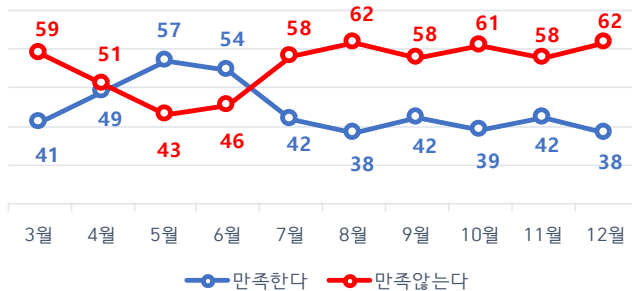
▣ 정부정책 만족도

※ 정부정책 '만족 않는다' 62%로 최고치 경신

- ▶ 12월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'만족 않는다'는 의견이 62%로,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함
- ▶ '만족한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진보층 △호남에 불과하고, 나머지 모든 계층은 '만족 않는다'는 의견이 우세함
- ▶ '만족 않는다'는 의견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서울, PK △학생, 은퇴.무직자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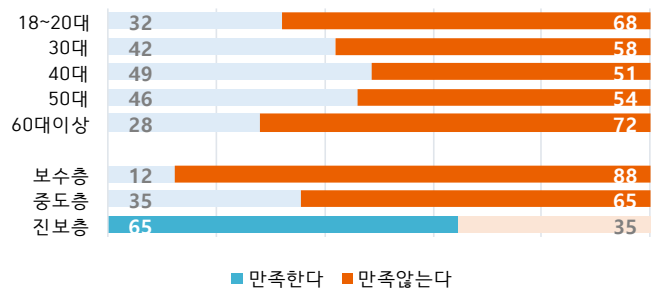
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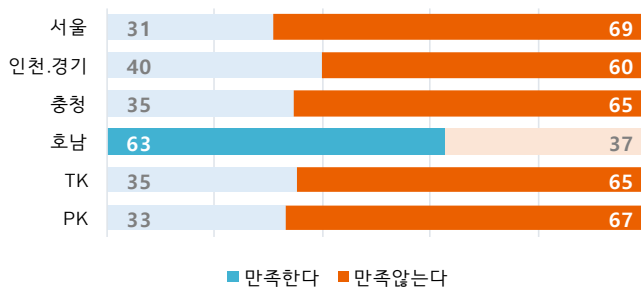
12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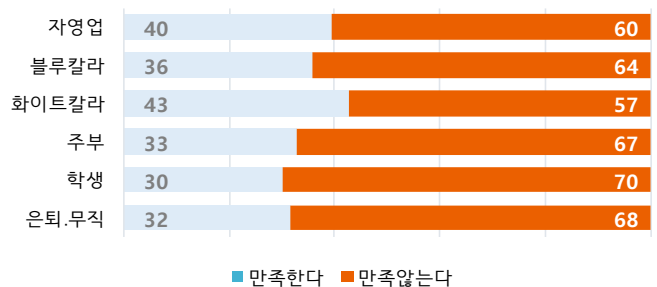
12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12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정부 신뢰도는 48%이고, 정부정책 만족도는 38%로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한 수치를 기록함
: 그만큼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
- ☑ 이러한 배경에는 코로나19에 가려져 있지만, 국민적 불만이 높은 각종 이슈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임
: 부동산 정책,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, 국회에서의 여당 독주 등은 여권에 불리한 이슈들로 분석됨
: 이에 비해 여권에 유리한 아젠다·이슈(한국판 뉴딜 등)는 별로 부각되지 않음
- ☑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정부의 그간의 성과가 부정적 이슈를 가리는 역할을 했지만,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다소 회의적이라는 지적임
: 즉, 'K방역 성과'로 일컬어지던 코로나19 통제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불만이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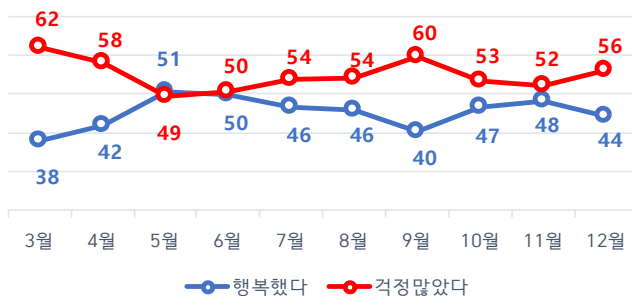
개인 행복도

※ 어제 하루 '걱정 많았다' 소폭 증가하며 지속 우위

- ▶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 행복보다 걱정하는 국민이 더 많아짐
- 어제 하루 '행복했다'는 응답은 44%이고, '걱정 많았다'는 응답은 56%로 '걱정 많았다'는 응답이 지속적 우위를 보임
- 11월과 비교할 때 '걱정 많았다'는 응답이 4%p 상승함
- ▶ '걱정 많았다'는 응답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우세한 가운데, '행복했다'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40대 △진보층 △호남에 그침
- 화이트칼라 계층은 '걱정 많았다'와 '행복했다'는 응답이 50%로 동일함
- ▶ '걱정 많았다'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서울, TK, PK △주부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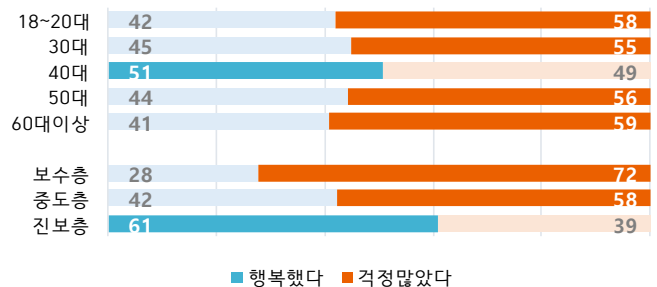
개인행복도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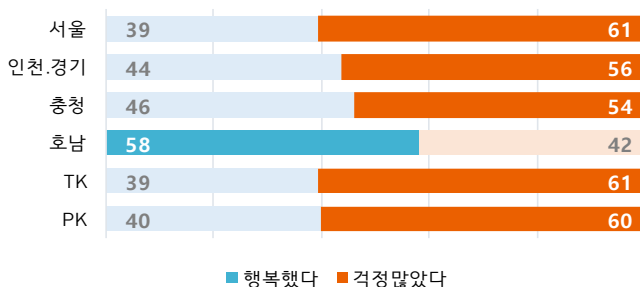
12월 개인행복도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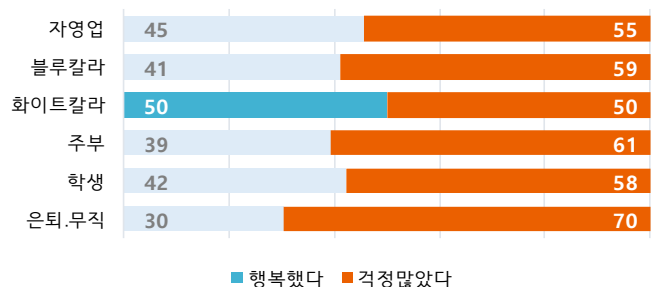
12월 개인행복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12월 개인행복도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코로나19 확산세는 국민적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키우면서 걱정스러운 나날을 강제하고 있음
- ☑ 코로나19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 백신접종이 영국, 미국, 캐나다 등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 접종 일정이 불확실하기에 당분간 '걱정'을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
- ☑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과 더불어 최대한 빠르게 백신을 확보하고, 접종 일정 등을 발표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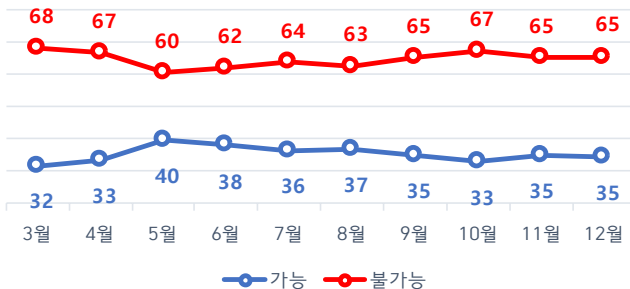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※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불가능하다' 인식 확고

- ▶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연속 '불가능하다'는 의견이 60%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
 - 12월 조사에서도 '가능하다' 35% vs '불가능하다' 65%로 11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함
- ▶ 모든 계층에 걸쳐 '불가능하다'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△보수층 △PK △주부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- ▶ 상대적으로 '가능하다'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△진보층 △호남 △블루칼라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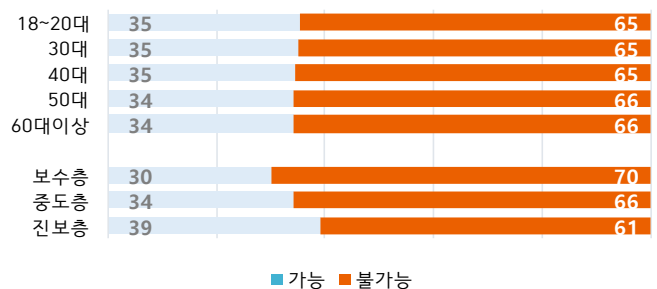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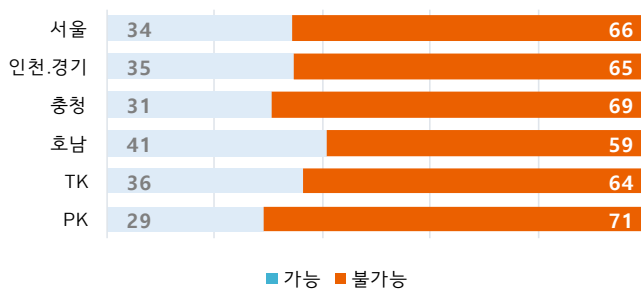
12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 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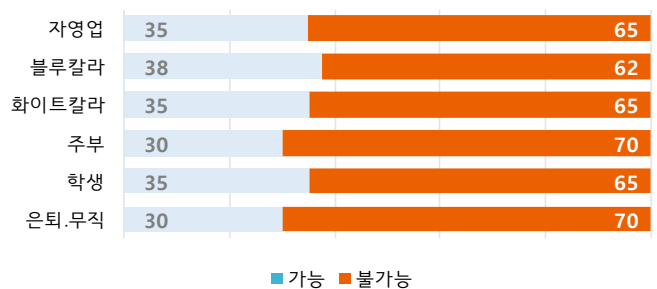
12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 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12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 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올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가구당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들었고,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전체 소득이 감소해, 빈부 격차는 더욱 확대됨(자료, 통계청)
 - : 근로소득은 가구당 평균 347만 7천원으로 1.1% 줄었음
 - : 또한 소득 하위 20% 가구의 가계소득은 1.1% 감소했지만, 상위 20% 가구의 가계소득은 2.9% 증가함
 - : 이에 따라 상위 20%와 하위 20% 가구 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4.88배 증가함
- ☑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
 - : 이른바 'K자형 회복'으로, 부자는 K자 윗선처럼 회복되는 데 비해 가난한 자는 K자 아랫선처럼 회복은커녕 더욱 악화된다는 것으로 미국 고용시장 등에서 확연히 나타나는 현상임
- ☑ 경제 회복의 온기가 일자리를 잃지 않은 전문직이나 부유층에 집중되고,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특정 업종에는 전달되지 않는 K자형 회복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될 경우 계층상승 가능성은 더욱 악화될 것임

조 사 개 요

조 사 기 간

2020년 12월 4일(금) ~ 12월 6일(일)

조 사 방 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
조 사 기 관

케이스탯리서치

표 본 추 출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

표 본 틀

케이스탯리서치 K-패널

유 효 표 본

총 1,110명

표 본 오 차

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2.94\%p$

가중치 부여방식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셀 가중 부여
(2020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)

케이스탯은 조사·통계·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,
매월 2회 “**Kstat Report**”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

- **Kstat Report**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(Buzz)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는 사회, 경제, 생활,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.
- **Kstat Report**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.
- **Kstat Report**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는 매월 2,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, 문의 메일(report@kstat.co.kr)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


Kstat Report 20호는 “2021년 1월 14일”에 발행됩니다.

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